

#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팡파르'

내일부터 26일까지 무주 태권도원 일원서

오프라인 시범경연 · 온라인 공인품새 등

위드 코로나 시대 맞아 온 · 오프 동시 진행

제14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22일~26일 까지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태권도 시범경연대회가 치러지며, 온라인 행사는 온라인 태권도대회로 공인품새와 연속발차기 등이 마련됐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태권도 시범경연대회는 국내 태권도 시범단 26팀에 585명이 참여한다.

온라인 태권도대회인 공인품새는 2,770명, 연속발차기는 1,148명 등 총 3,918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게 된다.

해외 참가국은 브루나이, 뉴칼레도니아, 파키스탄, 카타르, 러시아, 미국, 브라질 등 17개국에서 출전한다.

당초 태권도 시범경연대회는 약 50개팀이 참가를 희망했으나, 국내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모든 팀이 참가하지 못했다.

온라인 대회 역시 중국과 인도 등에서 약 2,000명이 추가 신청을 했으나 인터넷 장애나 참가신청 마감 등으로 추가신청을 받지 못했다.

이번 엑스포는 국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개회식, 만찬, 간담회, 폐회식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소했다 또 행사 참여자 전원은 48시간 이전 PCR검사와 자기문진표, 참가자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QR체크인 열 체크, 전신소독 등의 절차를 거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이병하 조직위원장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17개국 4,513명이 참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나타난 결과로,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전북도와 무주군의 홍보 및 스포츠 관광산업은 물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웰린지 행사도 포함하고 있어, 무주군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지난해 열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서 시범단이 격파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 장애인체전 전북선수단, 종합순위 목표 향해 순항 중

사이클 석호진, 독주1km서 신기록

대회 1일차를 맞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북도 선수단은 금1, 은4, 동4를 획득하며 대회목표인 종합순위 11위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20일~25일까지 6일 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장애인체전에 25개 종목, 490명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회식은 취소됐다. 특히 대회 운영관계자 및 시·도선수단 전원 현지 도착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후 음성 확정되면 대회참여가 가능하다. 최초 PCR검사 후 72시간 이내 재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무관중 경기운영 및 사전 등록된 인원 외에 경기장 출입통제 등 대회기간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과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일 현재 주요 기록을 살펴보면 사이클 석호진 선수(사진)가 한국신기록으로 남자트랙 독주1km(C1)에서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볼링 임재승 선수는 남자 개인전(TP3) 은메달, 육상필드 선장미 선수는 여자 원반던지기(F35.38) 은메달, 사이클 박진하 선수는 남자트랙 개인추발 3km(C2) 은메달, 사이클 권상현 선수는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남자트랙 개인추발4km(C5)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트랙 이현지 선수는 여자 800m(T20) 동메달, 육상트랙 최용진 선수는 남자 800m(T37) 동메달, 사이클 박슬기 선수는 남자트랙 독주1km(C2) 동메달, 배드민턴 강성락 박기홍 선수는 남자 복식(휠체어통합)에서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21일 열리는 경기에서는 육상 전민재, 남자 포환 윤한진, 여자 포환 문지경, 사이클 김정빈·최지윤, 탁구 이근우 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한다. /정은성 기자

## “내 꿈은 우사인 볼트... 세계적인 선수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번 전국체전에서 육상 100m와 200m 단거리를 석권한 전북체고 문해진 군(3년)이 전북을 대표하는 육상 스타로 급부상했다.

문 군은 중학교 2학년때 전북체육중 이순철 감독의 눈에 띄어 체계적인 육상 지도를 받았다.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운동을 시작한 그였지만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고등부 마지막 대회인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최고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육상 기대주’ 전북체고 문해진... 전국체전서 100m·200m 단거리 석권 체전 남고부 사상 최초, 전북 육상 역사 ‘한 획’... 실업팀 입단도 확정

문 군은 100m 달리기에서 10초60, 200m 달리기에서 21초35의 기록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비록 개인의 최고 기록에 못미치는 기록이지만 전국체전 육상(트랙) 남자 고등부 사상 최초 100m와 200m를 동시 석권한 전북 육상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처럼 육상계의 기대주로 떠올랐지만 문 군은 자만하지 않고 훈련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자신을 재촉했다.

순발력이 뛰어나고 중간 질주 능력은 좋지만 후반 스피드가 떨어지는 약점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해진 군은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최

종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고등부 한국 기록을 갖고 있는 신민규 선수를 뛰어넘고 싶고 10초 대 초반 기록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9초대 벽도 넘고 싶다고 말했다.

실업팀 입단이 확정된 문 군은 “육상이라는 종목을 접하고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게 도와 준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전북체고에 감사하다”며 “우사인 볼트와 칼 루이스처럼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남원시

# 행복한 남원에서, 행복한 귀농귀촌!